



미리 보는 '2011년 서울 국제 사진영상기자재전'

2. P&I 2011 프리뷰

사진인들의 축제마당인 '2011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이 4월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코엑스 본관 1층 A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올해로 20회 째를 맞이하며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규모의 사진 관련 행사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 전시회에는 삼성, 올림푸스, 소니, 니콘, 캐논, 파나소닉 등 메이저 카메라 업체가 대거 참가해 다양한 시연행사와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출력장비, 사진 소프트웨어, 사진 액세서리, 사진 스튜디오 관련 장비 등을 한자리에서 봄으로써 최신 기술동향의 흐름 파악과 함께 참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운 체험의 장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사진·영상 축제인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Photo&Imaging 2011)'이 4월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본관 1층 A홀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

올해 20회를 맞은 'Photo&Imaging 2011(이하 P&I 2011)'가 기대를 모으는 이유는 세계적인 장기 불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해마다 이 전시장을 찾는 개

인 참관객을 비롯하여 프로사진가, 해외 바이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층으로부터의 관심과 성원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전시회에도 국내 토종 카메라 업체인 삼성을 비롯하여 캐논, 니콘, 소니, 올림푸스, 파나소닉 등 메이저 카메라 업체들이 대거 참가하여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의 콤팩트 카메라와 DSLR, 점차 시장이 무르익고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 등을 선보

일 예정이다. 또한 프린팅 관련으로 다양한 제품 전시와 시연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사진관련 액세서리 및 관련 소품 업체들도 대거 참여하여 다양한 볼거리·찍을거리 등을 선사하며 사진관련 축제의 한마당을 장식할 예정이다.

주최측, 해외 유력 바이어 유치에 적극 나서

한국광학기기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코엑스 등 주최측은 P&I 2011가 국제적인 사진·영상 축제로서 손색이 없도록 사전 준비는 물론, 바이어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주최측은 올해도 해외 B2B 전문사이트와 협력하여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진행함은 물론 일본, 미국, 유럽, 인도, 중국, 홍콩 등 주요 지역의 유력 전문지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지속적인 해외 홍보활동을 펼쳤다. 비록 일본 대지진에 따른 방사선 유출 문제 등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해외 바이어가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전시회에는 22개국에서 186개 브랜드 111개사가 참가했으며, 관람객 67,052명이 다녀가 사진영상산업 및 P&I 전시회의 높아진 위상을 다시금 실감케 했다. 주최측은 올해도 참가업체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해외 유력 바이어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바이어 마케팅센터'를 통해 바이어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화와 함께 사진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말미암아 일반인들의 전시회 참가도 해마다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국내외 바이어와 사진애호가 및 일반인들을 모두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기절정의 최신 카메라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P&I 2011의 최대 즐거움은 국내 토종기업 삼성을 비롯하여 캐논, 니콘, 소니, 올림푸스, 파나소닉 등 세계 유명 브랜드들이 한 자리에 총 집결하여 최신 제품과 기술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카메라와 출력장치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행사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브랜드별 제품들을 소비자가 직

접 비교를 해볼 수 있다. 올해는 한창 시장이 무르익고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비롯하여 더욱 다양한 기능으로 무장된 콤팩트 디카와 DSLR 제품들이 대거 출품되어 관람객들을 설레게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확산을 통한 소셜네트워크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진촬영과 함께 무선전송이 가능하도록 무선전송시스템을 갖춘 카메라들이 눈길을 끌 전망이다.

카메라 업체들은 무선전송기능, 터치스크린 액정, 자동장면인식, 풀 HD동영상, 회전형 액정화면 등 신기술을 적용한 신제품들을 이번 P&I 전시회를 통해 대거 선보일 예정에 있다.

삼성전자 디지털이미징사업부는 디자인과 기능, 성능 등에서 기존 제품과 차별화한 미러리스 카메라 'NX11'과 미러리스 디카 라인업인 NX 시리즈의 교환렌즈를 전진배치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은 이번 P&I 2011에서 DSLR인 EOS 600D를 필두로 한 제품군과 신제품 렌즈들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캐논은 우수한 성능으로 호평을 받아온 줌렌즈 EF-S 18-55mm F/3.5-



5.6 IS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EF-S 18-55mm F/3.5-5.6 IS II와 프로 사진가를 위한 초 망원 렌즈인 EF 500mm F4L IS II USM, EF 600mm F4L IS II USM 등 렌즈 3종 등을 출품할 예정이다.

올림푸스한국은 현재까지의 펜 라인업을 중심으로 미러리스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테마관과 함께 고배율 줌, 아웃도어 카메라 등 특화된 기능의 하이엔드 카메라 라인,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콤팩트 카메라 라인업을 총괄하여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참여형 행사를 통해 직접 소비자들이 올림푸스 카메라군의 신기술을 체험해 보고 즐길 수 있는 신개념의 멀티 플렉스 전시관을 꾸밀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는 다양한 사진인화용 포토프린터와 파생 제품들이 대거 전시될 예정이다. 포토프린터는 짧은 시간에 고품질 사진을 얻을 수 있고 PC와 연결하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뿐 아니라 휴대폰 사진도 바로 인화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 이벤트 행사장, 거리의 키오스크 인화기, 사진 인화소 등 활용도도 높다. 포토프린터 중에서는 가장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 염료승화방식인데 엡손, 캐논, HP, 코닥 등에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일반인·전문가 대상 세미나·사진공모전 등 다채롭고 알찬내용의 부대행사

'프로포즈(Propose)'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시기간 중 다채로운 부대행사 및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어 참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기회, 설레임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프로사진가협회인 PPA(Professtional Photographers of America)의 공개심사를 통한 Asia Pacific Print Competition(사진공모전), 100만명의 사진 마니아가 활동하고 있는 사진전문동호회인 SLRCLUB 사진전 등이 열릴 예정이다. 또한, 프로사진가를 대상으로 PPA 강사가 진행하는 세미나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소셜미디어 활용, 사진첩, 컬러매니지먼트, 이미지 보정, 포토샵 리터칭 등)의 P&I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200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며 아시아 최초의 사진 전문 페어로 자리잡은 '서울포토 2011'이 전시기간동안 펼쳐진다. 올해는 체코&슬로바키아가 주빈국으로서 한국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준 영미 또는 독일 중심의 사진과는 다른 제품을 만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올해의 초청 작가는 배병우 작가로 소나무 작품 외에 새로운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P&I 2011 세미나 일정

일자	시간	강사	주 제	장 소
4.19(화)	10:00~18:00	한국사진문화협회	APPC 사진공모전 공개심사	컨퍼런스룸 327호
4.20(수)	10:00~18:00	한국사진문화협회	APPC 사진공모전 공개심사	컨퍼런스룸 327호
4.21(목)	10:00~12:00	Helen Yancy	돈 버는 예술적 페인팅 기법(Artistic Painting for Profit) (유료강의)	컨퍼런스룸 318호
	12:00~14:00	손정일	소셜미디어는 브랜드다	전시장 내 세미나룸
	12:00~14:00	이영희 (한국학술정보)	나만의 사진책 만들기	전시장 내 세미나룸
	13:00~17:00	Helen Yancy	돈 버는 예술적 페인팅 기법(Artistic Painting for Profit) (유료강의)	컨퍼런스룸 318호
	13:00~16:00		일본 세미나	컨퍼런스룸 327호
	15:00~17:00	임승균/박정민 (피앤피솔루션)	디지털 이미징 토털 솔루션의 이해와 시장 활성화 방안	전시장 내 세미나룸
16:00~18:00	김용성	인상사진의 새로운 방향	전시장 내 세미나룸	
4.22(금)	10:00~12:00	Helen Yancy	돈 버는 예술적 페인팅 기법(Artistic Painting for Profit) (유료강의)	컨퍼런스룸 318호
	10:00~13:00	배마1(유료강의)	-소셜 시대의 마케팅전략과 스튜디오의 미래 전략 -프로사진가를 위한 컴퓨터 구성과 관리 -예술로서의 사진세계: Fine Art 리터칭	컨퍼런스룸 327호
	13:00~15:00	김정대	ACR활용과 자가 프린팅 구축법	전시장 내 세미나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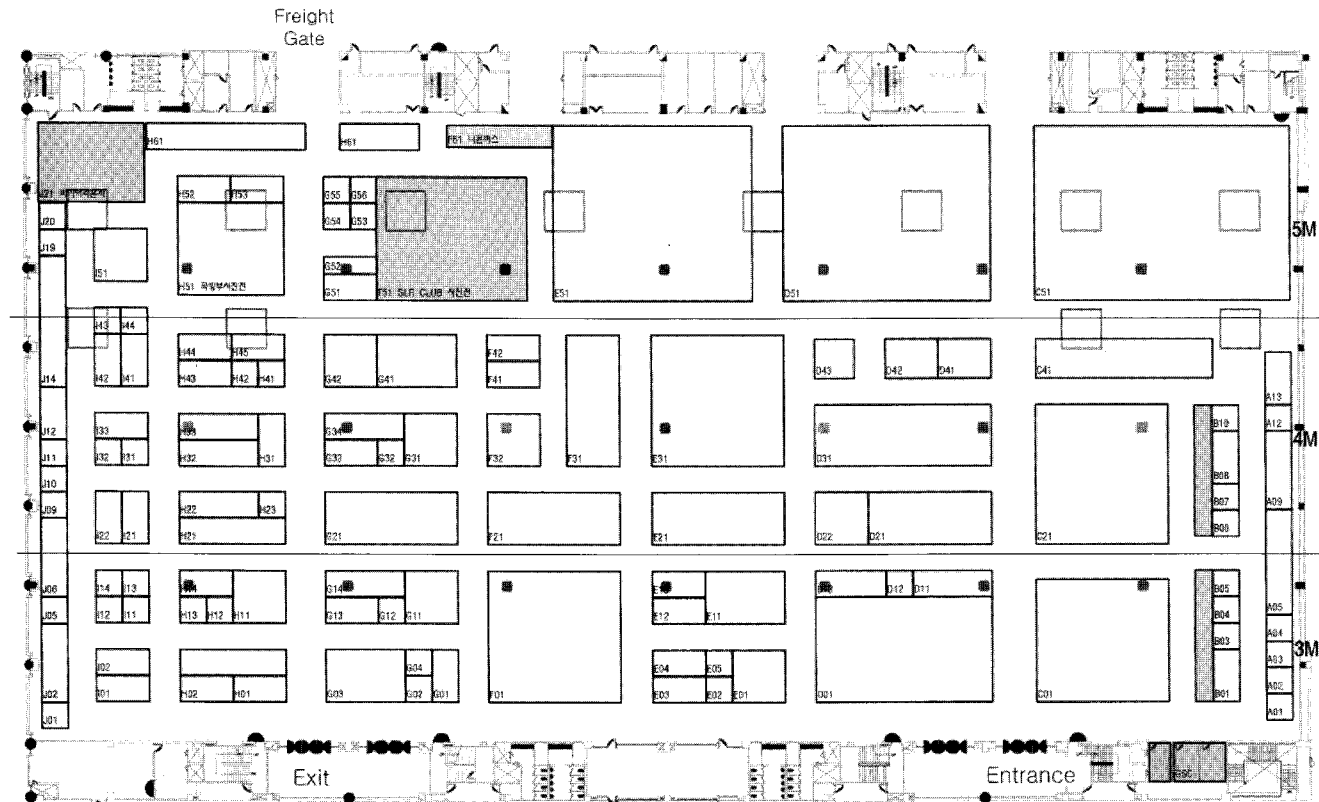
일자	시간	강사	주 제	장 소
4.22(금)	13:00~15:00	김 환 (컬러라이프 컨셉트그룹)	촬영에서 출력까지! 디지털사진가를 위한 컬러매니지먼트의 모든 것	컨퍼런스룸 327호
	13:00~17:00	Jessica Vogel	베이비사진 영업을 위한 모든 것(Bundling your Business with Babies) (유료강의)	컨퍼런스룸 318호
	15:00~17:00	Rafael Soltero (피애펬솔루션)	이미지 보정 소프트웨어 Perfectly Clear	전시장 내 세미나룸
	16:00~18:00	신미식	사진은 감동이다	전시장 내 세미나룸
	16:00~18:00	서진수	미술시장과 사진시장의 미래	컨퍼런스룸 327호
4.23(토)	10:00~12:00	민이기(델가)	디지털사진으로 디지털컨텐츠 (동영상, 블로그, 카페, 상품카드로그 등) 만들기	컨퍼런스룸 327호
	10:00~13:00	이박고	이박고와 함께하는 포토샵 감성 리터칭	전시장 내 세미나룸
	10:00~14:00	미 정	SONY 세미나	컨퍼런스룸 318호
	12:00~15:00	오영민, 유판	중국 컨템포러리 사진의 잠재력	컨퍼런스룸 317호
	15:00~17:00	배병우	소나무와 나의 작품 세계	컨퍼런스룸 317호
	15:00~17:00	현정범(여울미디어)	초보 DSLR 유저를 위한 현정범의 친절한 사진 이야기	전시장 내 세미나룸
	15:00~17:00	Chris Crangle (피애펬솔루션)	Canson Digital Fine Art Paper 한국 런칭쇼	전시장 내 세미나룸
	15:00~18:00	미 정	파나소닉 세미나	컨퍼런스룸 318호
13:30~17:30	Cindy Kassab	Good, the Bad and the Wow! (유료강의)	컨퍼런스룸 327호	
4.24(일)	10:00~12:00	Cindy Kassab	Good, the Bad and the Wow! (유료강의)	컨퍼런스룸 318호
	10:00~12:00	민이기(델가)	디지털사진으로 디지털컨텐츠 (동영상, 블로그, 카페, 상품카드로그 등) 만들기	컨퍼런스룸 327호
	11:00~13:00	이상엽	사진과 인문학과 스토리텔링	전시장 내 세미나룸
	12:30~14:30	Cindy Kassab	Good, the Bad and the Wow! (유료강의)	컨퍼런스룸 318호
	13:30~15:30	김중훈(빠박김)	"사랑한다면 카메라를 들어라"	전시장 내 세미나룸
	15:00~18:00	베마2(유료강의)	스튜디오 창업/경영 실무 강좌 -인물사진 조명과 리터칭 기법	컨퍼런스룸 318호

P&I 2011 전시회 개요

- **전시명** : 2011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
(SEOUL INT'L PHOTO & IMAGING
INDUSTRY SHOW 2011/PHOTO &
IMAGING 2011)
- **기간** : 2011. 4. 21(목)~4. 24(일)
- **관람시간** : 10:00~18:00/24(일) : 10:00~16:00
- **주제** : 프로포즈(Propose)
- **주최** : 한국광학기기협회(KOIA), 코엑스(COEX),
한국사진영상기재협회(KPIMA)
- **후원** : 지식경제부, SLRCLUB, 대한사진영상신문,
미국프로사진가협회(PPA)
- **협찬** : 삼성전자(주)
- **장소** : COEX 전시장 본관 1층, A홀
- **참가규모** : 120개국 120개사 530부스
- **부대행사** :
-Online Community 사진전
-디지털 이미징 세미나 및 밴더 세미나
-SEOUL PHOTO 2011 등

■ Photo & Imaging 2011 부스배치도

P&I 2011 Floor Plan April 21. ~ 24. 2011 / Coex, Seoul, Korea



■ Photo & Imaging 2011 참가업체 리스트

No	참가업체명	부스No.	No	참가업체명	부스No.	No	참가업체명	부스No.	No	참가업체명	부스No.
1	유한기획	A01	26	바이텍씨엔지	E01	51	코오롱인더스트리(주)FrC부문	G41	76	친구사이	I02
2	(주)에이씨미디어넷	A02	27	니름테크	E02	52	현대교역(주)	G42	77	평아트	I11
3	자원무역	A04	28	희망개발	E03	53	대한사진영상신문	G51	78	예닐곱	I12
4	삼양테크	A05	29	본젠코퍼레이션	E04	54	신지	H01	79	준시스템	I13
5	포토몬	A09	30	그린촬영시스템(주)	E05	55	소노로앨범	H02	80	부원디지털	I14
6	(주)케이앤씨미디어테크놀로지	A12	31	(주)두리코씨엔티	E11	56	동인기연	H11	81	두두앨범	I21
7	에스엘알렌트	A13	32	에이데이터	E12	57	현대캐버스	H12	82	아이원 앨범	I22
8	BlackRapid Inc.	B01	33	쁘사시	E13	58	그리심엔텍	H13	83	아트데코	I31
9	(주)켄타코리아	B04	34	매틴	E21	59	한국광학기기협회	H14	84	(주)아트사인	I32
10	Union Camera Hong Kong Limite	B05	35	파나소닉	E31	60	케이피에스	H21	85	다원엑자	I33
11	아이노벨	B06	36	니콘	E51	61	호루스벤누	H21	86	(주)성진에드컴	I41
12	월간사진	B08	37	세기	F01/F21/G01	62	씨지코리아	H22	87	한국사진영상기자협회	I42
13	사진사랑	B10	38	KOREA J&C	F31	63	스탑북	H23	88	주식회사 하이비즈	I43
14	울림푸스(한국(주))	C01,C21	39	마주리코알프(주)	F32	64	엠팩인터내셔널	H31	89	예술도서	I44
15	썬포토(주)	C41	40	디카팩	F41	65	케이피유어스	H33	90	피앤피솔루션	I51
16	삼성	C51	41	디지털청풍	F42	66	월간 포토플러스	H33	91	디지털월드	J01
17	HP	D01	42	(주)시너스와 사람들	G03	67	리바트엑자	H41	92	유일포토아트	J02
18	(주)감냥	D11	43	포토클램	G11	68	다보미시스템	H42	93	범천엑자	J06
19	기선	D13	44	우리사진학원	G12	69	원케이	H43	94	델가	J10
20	앨범리더	D22	45	캐리마	G13	70	(주)씨비엔	H45	95	아트앤프레이밍(현지)	J11
21	에일아트	D22	46	시큐라인	G14	71	국방부사진전	H51	96	원배경	J12
22	(주)게리즈	D41	47	오로라라이트뱅크	G21	72	이랄라인터내셔널	H52	97	디지털포토	J14
23	샌디스크	D42	48	(주)굿스굿	G31	73	리슨졸코리아(유)	H53	98	인터마트	J20
24	컬러라이프인셈트그룹주식회사	D43	49	청광기계	G32	74	로우프로	H61			
25	캐논	D51	50	틀쟁이	G33	75	SMDV	I01			